

왕에게 바쳐진 진상품, 감귤

제주를 상징하는 귤은 왕에게 진상하던 대표적인 과일이었다. 제주에서는 곳곳에 여러 과원을 두어 왕에게 바칠 귤을 재배했다. 오늘날 누구나 편히 구해 먹을 수 있는 귤은 과거 임금만이 먹을 수 있던 귀한 과일이었다.



염돈로 | 서귀포시 강정동 2093-1 ~ 서귀포시 강정동 1926-1(약 1.3km)

신서귀로 | 서귀포시 법환동 752 ~ 서귀포시 서호동 1133(약 1.6km)

김정문화로 | 서귀포시 강정동 196 ~ 서귀포시 서호동 1486-2(약 0.8km)

호근로 | 서귀포시 서호동 308-1 ~ 서귀포시 호근동 2012(약 1.2km)

서호로 | 서귀포시 서호동 614-2 ~ 서귀포시 서호동 299-2(약 0.7km)

막동산로 | 서귀포시 호근동 1793-1 ~ 서귀포시 서호동 826(약 0.6km)

새왓로 | 서귀포시 서호동 867-1 ~ 서귀포시 서호동 730-2(약 0.8km)

염돈로 | 고돈과원

염돈로는 염돈동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염돈동에는 옛날 귤을 재배하는 과원이 있었다. 귤은 옛날부터 전복과 함께 왕에게 바치는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이었다. 그래서 제주 곳곳에 관아에서 관리하는 35개의 과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있던 고돈과원도 그 중 하나이다. <탐라순력도>의 고원방고 편에는 제주목사가 이곳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감귤은 아무나 구할 수 없었던 귀한 과일이었다. 그래서 왕은 제주도에서 감귤이 진상되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하사하고 황감제라는 특별 과거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황감급제라고 했다. 그만큼 제주의 귤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탐라순력도> 고원방고

고돈과원은 고득종의 별장터였다고 전한다. 고득종은 조선 세종 때의 학자로 오늘날 서울시장급인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올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지역 출신의 한계를 극복한 선구자였다. 벼슬에 있는 동안 제주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히 국마장을 한라산 중산간에 조성하여 10소장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씨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제주목관아의 홍화각 현판이 고득종의 글씨라고 한다.

신서귀로 | 새서귀포

신서귀로는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길이다. 과거에는 과원으로 유명했다면 현재 이곳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다. 서귀포가 시로 승격되면서 서호동과 법환동 사이에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했다. 1990년 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고, 이후 서귀포시청 2청사와 기타 관청들이 들어서면서 행정과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서귀포라는 의미로 길 이름에 서귀라 이름을 붙였다. 최근에는 서호동에 서귀포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김정문화로 |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로는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인 김정문화회관을 의미하는 길이다. 김정문화



김정문화회관

회관은 재일교포인 김정 선생이 건립비를 지원해서 지어진 공연장이다. 서귀포 토평동 출신인 김정 선생은 1930년대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신의 고향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덕분에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서귀포시 사람들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호근로/서호로 | 호근동과 서호동

호근로가 지나는 호근동은 범섬이 가까이 보이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범 호(虎)자를 쓰다 좋을 호(好)자로 바꿔 써서 호근(好近)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마을에 돌무더기가 있어 ‘호근머들’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머들은 돌무더기라는 뜻이다.

호근동의 서쪽으로는 서호로가 이어진다. 이 길이 지나는 마을은 호근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서호동이라 했다. 과거 호근동과 서호동은 원래 하나의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19세기에 신호근리와 구호근리로 마을이 분리되었다. 20세기 초에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다시 호근리로 합쳐졌지만 얼마 못가 호근동과 서호동으로 마을이 분리되었다고 한다. 최근 서호동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호동을 중심으로 서귀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들이 이주를 할 예정이어서 신시가지의 또 다른 중심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막동산로 | 최영 장군의 막사

서호로와 교차되는 **막동산로**는 고려시대 원나라 목호를 토벌하러 왔던 최영 장군이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막사를 설치했다고 하여 막동산이라 불린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목호들은 고려군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마지막 항쟁지로 범섬을 선택했다. 섬에 들어간 목호군을 공격하기 위해 최영 장군은 범섬이 잘 보이고 거리가 가까운 호근동과 범환동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범환동 바닷가의 막숙포와 호근동의 막동산 두 곳은 군대가 머무른 곳이라고 전해온다. 최영 장군은 이 지역에서 마지막 작전을 짜며 목호들의 토벌을 독려했을 것이다.

새왓로 | 새(띠)

서호동의 **새왓로**는 새왓집동네라고 불리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동네에 살던 허규식의 집을 제주에서 새라고 부르는 띠로 지었다고 해서 새왓집이라 불렀다고 한다. 제주의 초가집들은 다른 지방과 달리 지붕을 띠로 이었다. 띠로 이은 지붕은 2년에 한 번은 갈아야 해서 띠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 중턱 초원지대에서 자란 띠를 뿔감처럼 베어다 구해 놓았는데, 어떤 때는 부잣집의 일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띠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초가집이 대부분 사라져버려 박물관이나 민속마을에서나마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